

Austin, Hyakutake, Lee 혜성에 나타난 미확인 분광선들에 대한 연구

한제희, 김상준
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

혜성은 태양계 초기의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주목받는 천체들이다. 이들 천체를 분광 관측하면 그 구성성분들을 밝혀낼 수 있다. 일반적으로 분광선의 강도와 파장이 관측되면 기존의 자료들과 비교 분석하여 분광선의 종류를 확인되는데 혜성의 spectrum에는 확인되지 않은 분광선들이 많이 존재한다. 이 논문에서는 1990년에 Lick 천문대에서 관측한 Austin 혜성, 1996년에 Kitt-peak 천문대에서 관측한 Hyakutake 혜성, 1999년 Keck에서 관측한 Lee 혜성의 가시광선 및 적외선 분광자료를 분석하여 미확인 분광선들을 찾아내 정리하고자 한다. 이 연구결과는 추후 미확인 분광선을 확인하고, 새로운 혜성내 분자, 원자를 발견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.